

광주에 미래 모빌리티 AI 제조혁신 거점 만든다

정부가 광주를 자동차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거점으로 육성한다. 완성차와 협력업체, AI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클러스터를 조성해 제조혁신과 지역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미래 모빌리티 MINI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열고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를 위한 M.AX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완성차 기업과 자동차 부품업체, AI 공급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광주 자

동차 산업의 AI 전환(AI) 전략과 지역 제조혁신 방안을 공유했다.

자동차 산업은 AI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대표적인 첨단 융복합 산업이다. 동시에 지역 제조업과 일자리, 기업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정부의 '5급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도 중요한 축으로 꼽힌다.

광주는 완성차 생산시설과 다수의 협력업체가 집적된 자동차 산업 기반을 갖춘 메타 첨단3지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제조업과 AI를 결합한 산업 혁신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부, '미래 모빌리티 M.AX 클러스터' 조성 추진 데이터센터 기반 AI 전환 지원...전국 확산 모델 육성 GGM·한국알프스 등 선도공장 중심 AI모델 개발·실증

이날 발표된 광주 MINI 얼라이언스의 구상은 자동차 가치사슬 전반에 AI를 접목한 미래 모빌리티 M.AX 클러스터 구축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한국알프스 등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비전검사와 예지보전, 무인물류 등 제조 공정별 AI 모델을 개발·실증한 뒤 이를 산업단지 전반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생산현장과 AI 산업 기반이 한 지역에 함께 구축돼 있다는 광주의 강점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생산 공정과 품질관리, 물류 과정에서 축적되는 제조 데이터를 AI 모델 개발에 활용하고, 개발된 AI를 다시 생산현장에 적용해 새로운 데이터를 축적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조 경쟁력을 높인다

는 전략이다.

산업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단지 지원정책을 통해 조성 중인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데이터센터를 제조혁신 핵심 인프라로 육성할 방침이다. 데이터 저장과 활용 기반을 강화해 제조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AI 인프라 설비의 국산화 확대해 제조업과 AI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참석 기관들은 광주 MINI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제조기업과 AI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동차 산업 전반으로 AI 전환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기업 맞춤형

AI 전환 지원과 현장 중심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해 제조혁신이 산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광주에서 구축되는 M.AX 모델을 다른 산업단지와 자동차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지역이 주도하는 제조혁신 성공 사례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 대전환 시대에 제조업의 AI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광주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와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성공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제조혁신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반도체 팹 입지 어디로...지역사회 의문 증폭

삼성·SK 언급 없어...전력·용수 최종 조율 가능성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남광주에 반도체 팹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정확한 공장 입지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이어 투자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양 그룹은 전남 청와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도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보고회에서 두 그룹은 투자 계획을 공유했지만 팹이 들어설 정확한 위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사실상 최종 부지 확정 전 단계에 머무는 조심스러운 해석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후부지 윤곽은 이미 여러 차례 거론돼 왔다.

삼성전자는 광주권 팹 2기 후보로 '광주첨단(장성) 3지구'와 '광주군공항 이전 연계 탄약고 부지'를, SK하이닉스는 '전남 해남 솔라시도'가 유력 입지로 꾸준히 언급돼 왔다.

다만 공식 발표가 아닌 만큼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입지 확정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반도체 산업 특유의 복잡한 조건이 원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전력과 용수 확보, RE100(재생에너지 전용) 대응, 인허가 속도, 산업 생태계 연계성 등이 동시에 충족돼야 하는 만큼 단일 조건이 아닌 '패키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도체 팹은 24시간 가동되는 초대형 전력 소비 산업인데, 안정적인 전력과 하루 수십만 규모의 산업용수 공급이 필수다. 여기에 RE100까지 겹치면

서 입지 조건이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졌다는 평가다.

현재 거론되는 각 부지들은 서로 다른 강점을 갖췄다.

광주 첨단3지구는 즉시 착공이 가능한 공영개발 기반과 인공지능(AI) 산업 인프라 집적이 강점으로 꼽히고, 군공항 이전 부지는 국가 소유 토지 활용에 따른 신속성이 장점으로 평가된다.

해남 솔라시도는 대규모 부지와 전력·용수 확장성,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대응력에서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에서 이번 사업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하며 전력 6.3기가와트(GW), 용수 1일 65만t 공급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지만 인프라 구축과 입지 확정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최종 결정까지는 추가 협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대형 투자 기대감과 함께 결국 어느 지역이 최종 선정 될 것인가라는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입지 확정 지연은 인프라·정책·산업 조건을 동시에 맞추는 과정으로 보인다"며 "향후 정부와 기업 간 세부 실행 협의가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기계획 수립	신규계획
미래차 국가산업 102만평	광주 군공항 용인부지
모그린 국가산업 123만평	무안 국가산업 후부지
첨단3지구 일반산업 102만평	
니주 에너지 국가산업 38만평	
영암해남 솔라시도 재생에너지 기반 기업도시 107만평(산업) 등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서남권에 수도권 못지않은 최적 교육환경 조성"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지원방안 발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남권이 수도권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만들어내겠다"고 30일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서남권 첨단산업단지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서남권에는 빛그린 등 선택

할 수 있는 좋은 입지와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등 개발이 가능한 입지 잠재력이 있다"며 "기업의 투자 계획이 확정됨과 동시에 기업의 시간표대로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재가 오고 머무르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과 교육이 중요하다"며 "최적의 교육환경과 의료시설, 문화와 체육시설이 함께 하는

직주락(職住樂) 균형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을러 "기업과 대학, 인재가 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 내에 캠퍼스 혁신파크와 도심융합특구를 활용해서 연구, 창업 공간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2027년이 되면 광주공항의 민항기능이 무안공항에 통합되고 무안공항 KTX 역사까지 개통하면 수도권, 충청권, 서남권 내 거점 간에도 이동이 빨라질 것"이라며 "국가 교통망, 대중교통, 첨단물류체계를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 광남일보 국민안전연중캠페인

운전할 땐 안전벨트

안전거리 · 전방주시 · 벨트착용

